

精,神,氣,血의 개념을 통해 살펴 본 四象體質人의 特性

I. 緒論	4
II. 本論	5
1. 精,氣,神,血의 개념에 대하여	5
1) 精과 神	5
2) 氣와 血	6
3) 精神과 氣血의 관계	7
2. 『東醫壽世保元』에서 보이는 각 體質과 精,氣,神,血의 관계	8
1) 『靈樞·通天』篇에 나오는 五態之人的 陰陽에 대하여	9
2) 四象體質과 精, 氣, 神, 血	9
III. 比較考察	11
IV. 結論	13
V. 參考文獻	13

精神氣血의 개념을 통해 살펴 본 四象體質人의 特性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白上龍

98년 大韓韓醫學會 全國學術大會 發表論文

I. 緒論

사람을 비롯한 모든 生命體는 그 個體의 空間的인 領域을 확보해주는 形體와 이를 유지해주는 生命力을 갖추므로써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存在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主體를 한의학에서는 氣¹⁾라고 한다. 그리고 氣의 변화이치를 陰陽五行이라고 하고 있다.²⁾

氣는 그 役割이나 起源, 位置, 作用, 形狀, 質的인 차이에 따라 精, 神, 氣, 血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시 津液, 營氣, 衛氣, 胃氣, 宗氣, 大氣, 腦髓, 骨, 筋, 脈, 皮毛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氣³⁾의 다양한 變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存在와 活動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가지 주체를 精, 氣, 神, 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陰陽五行의 이치에 의하여 그 특성을 구

분해 볼 수 있다.

『靈樞·通天』篇에서는 '五態之人'에 대해 논하면서 각 態人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陰陽의 多少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通天」편에서는 陰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 말하고 있지 않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사람을 크게,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네가지 體質로 나누고, 이 네 體質은 生理的, 病理的으로 자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體質의 差異가 생긴 이유를, 李濟馬는 性情의 특성을 통해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 「臟腑論」에서 神, 氣, 精, 血에 대한 언급을 덧붙이고 있다.

朴性植 등은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에서 「東醫壽世保元」이 성립하는 데 「東醫寶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있다⁴⁾ 「東醫寶鑑」의 이론적 핵심이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內景篇」은 身形을 필두로 해서 精, 氣, 神, 血의 등의 순서로 編制를 지어, 精, 氣, 神, 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精, 氣, 神, 血에 대한 개념을 통해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六節藏象論」 p. 36. "氣合而有形, 因變而正名, ..."

「五常政大論」 p. 257. "氣始而生化, 氣散而有形, 氣布而蕃育, 氣終而象變, 其致一也"

2) 洪元植, 上揭書, p. 35.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其生五, 其氣三."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168,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余聞人有精氣津液血脈, 余意以爲一氣耳, 今乃辨爲六名, 余不知其所以然."

4) 朴性植·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대한한의학회 사상의학회, pp. 7-8, 1993, 서울.

『靈樞·通天』편의 態人과 『東醫壽世保元』에 나오는 四象體質人의 상관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本論

1. 精,氣,神,血의 개념에 대하여

1) 精과 神

『東醫寶鑑·身形』과 『素問·金匱真言論』에 이르기를, “羅仙曰, 精者身之本, 氣者神之主, 形者神之宅也, ...”⁶⁾, “夫精者, 身之本也”⁷⁾ 라고 하여, 사람의 형체 즉, 몸뚱아리는 神을 담는 집과 같으며, 形體는 精을 基盤으로 해서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神은 氣의 주인이라고 하였으니, 곧 精을 基盤으로 하여 형성된 形體는 神의 主宰를 받아 氣에 의해 營爲된다고 할 수 있다.

『靈樞·本神』편과 『經脈』편에서 生命體에서 精의 位置와 작용에 대하여 이르기를, “故生之來, 謂之精”⁸⁾,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⁹⁾ 이라고 하여, 精은 生命이 존재할 수 있는 根據이자, 生命이 탄생하는 순간 가장 먼저 이루어

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精을 草木에 비유하자면 生命의 모든 능력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靈樞·決氣』편에서는,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¹⁰⁾ 이라고 하여, 精의 根源에는 神이 자리잡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君主之官인 心과 神이 生命體(즉 사람)에서 차지하는 位置에 대하여,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¹¹⁾ 라고 하여, 心이 君主之官으로서 生命활동을 주재하는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神의 變化가 心을 통해서 발휘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 또, 『靈樞·天年』편과 『素問·移精變氣論』에서, “失神者, 死, 得神者, 生也”¹²⁾, “得神者, 昌, 失神者, 亡”¹³⁾ 이라고 하여, 神의 有無로 죽고 삶을 규정하고 있으니, 神은 한 개체가 살아있다는 것 곧 生命 그 자체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東醫寶鑑』에서는, “神爲一身之主”¹⁴⁾ 라고 하여, 神은 한 개체의 모든 生命활동을 주재하는 主體임을 말하고 있다. 이 神의 來源에 대하여 馬蒔는, 『周易』을 인용하여, “易曰「男女構精, 萬物化生」, 蓋當男女構精之時, 兩神相合而成所生男女之形, 此精常先其身而生有其精, 斯有其形, 夫是之謂精也”¹⁵⁾ 라고 하여, 나를 낳는 父母의 神임을 말하고 있다. 즉, 父母의 陰陽之神이 서로 相合하여 精을 이루고 그 안에 神을 부여함으로써 자식이라는 새로운 生命體를 생성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精과 神은 하나의 生命體(사람)가 태

5) 氣는 廣義的인 의미와 狹義的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廣義的인 의미로 氣는 모든 사물을 이루고 움직이는 存在와 生命의 主體이다. 狹義的인 의미의 기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사람의 生命활동을 이끌어가는 활동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篇에서 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狹義的인 뜻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許浚, 東醫寶鑑, p. 74, 南山堂, 1987, 서울.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20.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68.

9) 洪元植, 上揭書, p. 79.

10) 洪元植, 上揭書, p. 168.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36.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241.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46.

14) 許浚, 上揭書, p. 94.

15) 醫部全錄III·黃帝靈樞經, p. 305, 大成文化社 影印, 1986, 서울.

어나 살아갈 수 있는 先天의인 根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靈樞·決氣」편의 「兩神相搏，合而成形，常先身生，是謂精」¹⁶⁾ 이라 하는 것과 「本神」편에서 말하고 있는, 「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¹⁷⁾ 을 통합하여 고찰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러한 精과 神을 陰陽으로 논한다면, 精은 陰이고 神은 陽이라고 할 수 있으니, 곧 陰精, 陽神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吳達은 「醫學求是」에서, 精과 神의 관계에 대하여 坎卦와 離卦를 빗대어, 「坎中之陽，神之根也，離中之陰，精之基也」¹⁸⁾ 라고 하였으니, 精과 神은 서로 陰陽의 짝을 이루어 서로를 보완하고 유지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몸을 있게 하는 기반인 精과 몸의 생명활동을 主宰하는 神은 서로 互根하는 한 生命에 있어서 음양의 두 主體라고 할 수 있다.

즉, 精과 神은 하나의 生命體를 존재가능하게 해주는 先天에서 來源한 陰陽의 한 軸의 兩極으로서 生命의 陰陽活動은 精과 神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氣와 血

「靈樞·決氣」편에서는 生命體를 존재가능하게 해주고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精, 氣, 津, 液, 血, 脈이 한 氣의 變態임을 논하고¹⁹⁾, 다시, 「上焦開發，宣五穀味，熏膚充身澤毛，若霧露之漑，是謂氣」²⁰⁾ 라고 하여, 精이나 血 등과 구별하여 氣만을 논한다면, 氣는 水穀으로부터 받은 營養物을 全身으로 펼쳐주는 動力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龔廷賢은 「萬病回春·卷上·諸氣」에서,

「人身之氣，一身之主也。要在周流順行而無病矣。逆則諸病生焉。男子宜養其氣以全其神，婦人宜平其氣以調其經。若內傷七情者，喜怒憂思悲恐驚是也，喜則氣散，怒則氣逆，…外感六淫者，風寒暑濕燥火是也，風傷氣者，爲疼痛，寒傷氣者，爲戰慄，…」²¹⁾ 이라고 하여, 氣는 움직이는 것이 本性이며, 움직임을 통해 모든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氣는 生命體의 生命活動을 실천해주는 動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靈樞·決氣」편에서 血에 대하여 이르기를 「中焦受氣取汁，變化而赤，是謂血」²²⁾ 이라 하고,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六氣」에서 「五穀精汁，在於中焦，…以奉生身，謂之爲血也」²³⁾ 라고 하여, 血은 中焦에서 氣가 水穀의 精微로운 津液을 취하여 붉게 변화시킨 것이며, 몸을 만들어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費伯雄은 「醫方論·卷二·四物湯」에서, 「血之取義，一爲榮，榮者發榮也，非血則無以潤臟腑，灌經脈，養百骸，此滋長之義也。二爲營，營者，營루也，非血則無以充形質，實腠理，固百脈，此內守之義也」²⁴⁾ 라고 하여, 血은 形體를 滋養하여 살지워주는 것, 곧 형태라는 實質의 成長과 結束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氣는 生命體의 활동능력과 변화를 提高해주는 動力의 역할을 하는데 비하여, 血은 이러한 氣의 활동이 벌어지는 形體라는 場을 살지워주고 유지해주는 營養分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氣와 血의 관계에 대하여, 張璠는 「張氏醫通」에서, 「氣主煦之，血主濡之。雖氣稟陽化，血稟陰質，而陰中有陽，陽中有陰，不能截然兩分，…」²⁵⁾ 이라

16) 洪元植, 上揭書, p. 168.

17) 洪元植, 上揭書, p. 68.

18) 吳達, 醫學求是, p. 9,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4, 中國.

19) 주) 2번 참조.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168.

21) 龔廷賢, 萬病回春, p. 162, 醫聖堂 影印, 1993, 서울.

22) 洪元植, 上揭書, p. 168.

2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p. 8, 大成文化社 影印, 1986, 서울.

24) 郭 예춘, 中醫名言大辭典·上에서 再引用, p. 372, 一中社, 1992, 서울.

25) 張璠, 張氏醫通, p. 209,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中

고 하여, 氣와 血이 비록 역할이 틀리고 陰陽의 속성이 틀리지만 음양의 互根과 轉化關係에 따른 變態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分切하여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血은 氣를 실어주는 實體이며 氣는 血을 끌어주는 動力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血과 氣의 來源과 특성에 대하여, 吳謙 등은 『醫宗金鑑·訂正傷寒論注·太陽上』 편에서, “營衛二者, 皆胃中後天之穀氣所生, 其氣之清者爲營, 濁者爲衛, 衛卽氣中之慄悍者也. 營卽血中之精粹者也. 以其定位之體而言, 則曰氣血, 以其流行之用而言, 則曰營衛. 營行脈中, 故屬于陰也, 衛行脈外, 故屬于陽也. 然營衛之所以流行者, 皆本乎腎中先天之一氣, 故又皆以氣言, 曰營氣, 衛氣也.”²⁶⁾ 라고 하여, 氣와 血은 陽과 陰으로 상대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그 質과 流行하는 部位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으로, 作用的인 측면에서 보면 衛氣와 營氣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營氣와 衛氣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父母로부터 來源하여 腎에 뿌리박고 있는 先天之氣라고 보았다.

즉, 氣와 血은 生命體가 자기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先天之氣를 바탕으로 水穀의 精微로운 것을 흡수하여 생산해 낸 것으로, 형체를 움직이고 기르며 보호하고 자양하는 實在的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精神과 氣血의 관계

앞에서 精과 神은 生命의 存在(형체)와 變化(생명활동)를 주관하는 主體로서 父母의 陰陽之氣로부터 래원하였으며, 氣와 血은 生命體가 자신의

形體를 유지하고 生命活動을 영위하는 行爲者로서 수곡의 정미로운 기운으로부터 來源함을 알아 보았다.

楊西山은 『弄丸心法』에서, “人身陰陽之分, 氣血魂魄而已. 氣爲火, 血爲水. 神者氣之主也, 精者血之根也. 主乎中者精神, 運乎外者 氣血. 故血稱營, 營者養也, 氣稱衛, 衛者護也”²⁷⁾ 라고 하여, 氣와 血이 사람의 몸을 滋養하고 運營하는 실제 활동을 발휘하지만, 神과 精의 조정과 받침에 의하여 부림받고 化生되는 것으로서 精과 神의 代理者적인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精, 氣, 神, 血의 根源의인 차이와 역할에 대해, 張介賓은 『景岳全書』에서 “凡人之陰陽, 但知以氣血臟腑寒熱爲言, 此特後天有形之陰陽耳. 至若先天無形之陰陽, 則陽曰元陽, 陰曰元陰. 元陽者, 卽無形之火, 以生以化, 神機是也, 性命系之, 故亦曰元氣. 元陰者, 卽無形之水, 以長以立, 天癸是也, 強弱系之, 故亦曰元精. …”²⁸⁾ 라고 하여 先天과 後天으로 정신과 기혈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神과 氣는 모두 陽性을 띠고 精과 血은 陰性을 띠지만, 精과 神은 先天의 陰陽으로서 生命이 誕生하고 存在할 수 있는 本質이며 實體가 없고, 氣와 血은 後天의 陰陽으로서, 하나의 태어난 生命體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實體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命體는 精과 神이라는 부모로부터 래원한 先天의 陰陽이 陰陽의 兩極을 세워 形體가 存在할 수 있는 자리와 이것이 變化할 수 있는 理致를 갖추면, 여기에 氣와 血이 들어가 이를 實際的인 形體와 機能으로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變化를 주관하고 실천하는 陽, 즉 神과 氣

國.

26) 吳謙 등, 醫宗金鑑·訂正傷寒論注, p. 10,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中國.

27) 곽계춘, 上揭書 p. 193에서 재인용.

28) 張介賓, 景岳全書·上, p. 4, 大成文化社 影印, 1988, 서울.

의 작용을 통해서 精神과 氣血의 작용을 살펴보면, 『素問·六微旨大論』에 이르기를, “出入廢, 則神機化滅, 升降息, 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矣. 故無不出入, 無不升降. 化有大小, 期有近遠. 四者之有, 而貴常守, 反常, 則災害至矣.”²⁹⁾ 라고 하여, 神機 즉, 精과 神의 出入에 이상이 생기면 ‘生長壯老已’라는 精神的인 변화가 正常的인 變遷을 잃고, 氣立 즉 氣와 血의 升降에 이상이 생기면 ‘生長化收藏’이라는 形體的 變化에 이상이 생김을 말하고 있다.

또한 精과 血, 神과 氣는 상호 滋補하는 관계를 가진다. 즉, 精과 神이 先天에서 來源하고 氣와 血이 後天에서 來源하여 質的으로 단계를 달리하면서도, 精과 血은 陰性을 띠므로써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神과 氣는 陽性을 띠므로써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즉, 精이 형체를 이룰 수 있는 中心軸이 되지만, 실제 形體가 이루어지는 것은 血의 形化作用이며, 神이 變化를 주관하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는 것은 氣의 動化作用이다. 뿐만 아니라, 精과 氣, 神과 血은 陰陽의 상대적인 관계를 맺어 서로 互生해줌으로써 先·後天의 연속관계를 지속시켜 준다. 이에 대하여 『靈樞·經脈』편과 『天年』을 살펴보면,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³⁰⁾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臟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人.”³¹⁾ 이라고 하였으며, 精과 氣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張介賓은 『景岳全書·傳忠錄』에서, “善治精者, 能使精中生氣, 先治氣者, 能使氣中生精, ...”³²⁾ 이라고 하였으며, 神과 血의 관계에

대하여, 『素問·八正神明論』과 『靈樞·營衛生會』편에서, “血氣者, 人之神”³³⁾, “血者, 神氣也”³⁴⁾ 라고 하였다. 즉, 先天의 精과 神, 後天의 氣와 血이 비록 稟賦와 役割은 달리 하지만 서로 호생함으로써 生命體와 生命活動이 永續性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또, 後天의 生命活動力인 氣는 先天의 精을 기반으로 化生해 나오고, 後天의 滋養物인 血은 先天의 神을 涵潤시켜줌으로써 精, 氣, 神, 血을 하나의 力學的인 구조로 엮어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先天의 陰陽之氣인 精과 神, 後天의 陰陽之氣인 氣와 血은 각기 그 化生의 來源을 달리함으로써 質的인 차이가 있지만, 서로 存在와 活動을 가능하게 해주는 相生의 관계를 갖는다. 동시에 先天과 後天, 陰과 陽이라는 來源과 特性을 달리함으로써 대립관계에 놓여있기도 하다.

2. 『東醫壽世保元』에서 보이는 각 體質과 精, 氣, 神, 血의 관계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醫源論』과 『四象人辨證論』에서, “余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壽世保元, ...”³⁵⁾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 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 而未盡精究也.”³⁶⁾ 라고 하여, 자신이 창안, 정립한 四象體質에 대한 근원이 『黃帝內經』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權健赫은 『太少

29) 洪元植, 上揭書, p. 244.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79.

31) 洪元植, 上揭書, p. 241.

32) 張介賓, 上揭書, p. 52.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 101.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 120.

35) 李濟馬,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p. 16, 信一文化社, 1964, 서울.

36) 李濟馬, 上揭書, p. 96.

陰陽인에 대한 形氣論의 연구」에서, 「靈樞·通天」篇과 「陰陽二十五人」篇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⁷⁾ 특히, 「通天」篇의 五態之人에 대한 서술과 명칭은 陰陽和平之人이 「東醫壽世保元」에 나오는 聖인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때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음양화평지인을 제외한 나머지 四態之人의 陰陽의 實體에 대하여 접근해보고자 한다.

1) 『靈樞·通天』篇에 나오는 五態之人의 陰陽에 대하여

本篇에 이르기를, “少師曰, 蓋有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濇,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府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必謹調之, 無脫其陰, 而瀉其陽, 重脫者易狂, 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外, 實陰而虛陽, 獨瀉其絡脈, 則強氣脫而疾, 中氣不足, 病不起也.”³⁸⁾ 라고 하고 있다. 陰陽의 多少를 살펴보면, 太陰之人은 ‘多陰而無³⁹⁾陽’이며 少陰之人은 ‘多陰⁴⁰⁾少陽’으로서 모두 陰이 많고 陽이 적다. 반면에 太陽之人은 ‘多陽而少陰’이며 少陽之人은 ‘多陽⁴¹⁾少陰’으로서 陽이 많고 陰이 적다. 이 문구만을 가지고 보면, 太陰之人과 少陰之人, 太陽之人과 少陽之人의 陰陽의 多少가 어떻게 四態之人 개별마다 筋骨氣血에 차이가 있는 이유

를 찾기 어렵다. 즉, 무엇이 각 態人之 氣質의, 形態의 차이를 결정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太陰之人은 ‘其陰血濁, 其衛氣濇, 陰陽不和, 緩筋而厚皮’라고 하고, 少陽之人은 ‘經少而絡大, 血在中而氣外, …獨瀉其絡脈, 則強氣脫而疾…’이라고 하여 氣血과 形體, 經絡의 陰陽不調和가 병이 된다고 한 반면에, 少陰之人은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라 하여 치료를 할 때 약간의 착오만으로 氣血의 敗折이 일어난다고 하여, 그 形體를 유지, 운영하는 氣와 血의 능력이 太陰之人 비하여 아주 미약함을 말하고 있다. 또 太陽之人은 ‘無脫其陽, 而瀉其陽. 重脫者, 易狂, 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라고 하여, 陽이 많은 態人임에도 불구하고 陽을 빼앗지 말라고 하였으며 음양의 부조화가 神志의 상태에 급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少陽之人의 陽이 많은 것과는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四態之人 개별마다 말하고 있는 陰陽의 구체적인 實體가 서로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太陰之人에서 말하는 陰陽과 少陰之人에서 말하는 陰陽, 少陽之人의 陰陽과 太陽之人의 陰陽이 구체적인 實體에 있어서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는 뜻이다.

2) 四象體質과 精, 氣, 神, 血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性命論」의 서두에서,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⁴²⁾ 라고 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地方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空間을, 人倫은 인간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의 規律을, 世會는 인간 사이의 關係를, 天時는 이 모든 것의 時間에 따른 變化라고 할 수 있다.⁴³⁾ 宇宙의 陰과 陽으로서 地

37) 權健赫, 太少陰陽인에 대한 形氣論의 研究, pp. 495-pp. 496, 대한원전의학회지, Vol. 10, 1996, 서울.

38) 洪元植, 上揭書, pp. 302-303.

39) 無字는 少字와 같은 뜻으로 풀어야 할 것 같다. 陰陽의 理致上, 獨陰이나 孤陽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0) 『甲乙經』에는 陰字 다음에 而字가 있다.

41) 『甲乙經』에는 陽字 다음에 而字가 있다.

42) 李濟馬, 上揭書, p. 1.

方과 天時는 空間과 時間이라는 인간이 存在하고 變化해간다는 生存의 기본요소이며, 인간 삶의 陰과 陽으로서 人倫과 世會는 살아있는 인간이 어떠한 규율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 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아있는 生命體(즉, 사람)는 先天에서 來源한 精과 神, 後天의으로 獲得한 氣와 血의 상호 補完과 調節을 통해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 보았다. 여기서 精은 생명을 숨췌하고 있는 씨앗으로서 形體를 존재하게 하는 바탕이며, 神은 생명활동 즉, 생명체의 變化를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氣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 자연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체의 動力으로서 神의 부림을 받으며, 血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安定的으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形體를 유지하고 자양하는 資源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地方, 人倫, 世會, 天時를 精, 神, 氣, 血으로써 서로 대입해 보면, 存在의 기반이 되는 精은 地方과 相通한 것이며, 變化의 主體인 神은 時間과, 생명활동의 物質인 기반인 血은 人倫과, 변화의 實在인 行爲者인 氣는 世會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少陰人이 地方의 居處에 廣博하며 太陰人이 人倫의 黨與에 광박하고, 少陽人이 世會의 交友에 광박하며 太陽人이 天時의 事務에 광박한 것과 연관지어 보면, 少陰人은 精, 太陰人은 血, 少陽人은 氣, 太陽人은 神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 神, 氣, 精, 血의 資生에 대하여,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髓海 髓海者 神之所舍也, …

膏海之清氣, 出于目而爲氣, 入于背脊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油海之清氣, 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⁴⁴⁾ 라고 하였다. 즉, 津海의 清氣는 神을 자생하고 膏海의 清氣는 氣를 자생하며, 油海의 清氣는 血을 자생하고 液海의 清氣는 精을 자생한다. 이렇게 자새된 神, 氣, 精, 血은 인체의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에 쌓임으로써 각기 그 부위를 다른 부위에 비하여 充實하게 만들어 形態의 인 變化를 일으킨다.

또 이제마는 精, 神, 氣, 血과 각 體質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 充足於頭腦而歸肺者大也, 太陽之嗅, 不能廣博於人倫, 故太陽之血, 不充足於腰脊而歸肝者小也, 太陰之嗅, 能廣博於人倫, 太陰之血, 充足於腰脊而歸肝者大也, 太陰之聽, 不能廣博於天時, 故太陰之神, 不充足於頭腦而歸肺者小也, 少陽之視, 能廣博於世會, 故少陽之氣, 充足於背脊而歸脾者大也, 少陽之味, 不能廣博於地方, 故少陽之精不充足於膀胱而歸腎者小也, 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 故少陰之精, 充足於膀胱而歸腎者大也, 少陰之時, 不能廣博於世會, 故少陰之氣不充足於背脊而歸脾者小也.”⁴⁵⁾ 라고 하고 있다. 太陽人은 變化에 廣博하여 生命의 變化를 주관하는 神이 발달되어, 神의 기운이 神이 發揚하는 頭腦를 充足시키고 臟腑중 上部에 있는 肺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크다. 반면에 滋潤, 涵養하는 血이 약해 形體를 받쳐주는 腰脊이 취약해져 肝으로 돌리는 기운은 작다. 太陰人은 規律에 광박하여 生體의 滋潤, 涵養을 주관하는 血이 발달되어, 血의 기운이 形體를 받쳐주는 腰脊을 충족시키고

43) 李濟馬 著, 洪淳用·李乙浩 譯述, 四象醫學原論, pp. 7-8, 漢림출판, 1974, 서울.

44) 李濟馬, 上揭書, p. 9.

45) 李濟馬, 上揭書, p. 9.

臟腑중 中下部에 있는 肝으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크고, 肺로 돌리는 기운은 작다. 少陽人은 規律의 利用에 광박하여 生體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氣가 발달되어 기의 기운이 움직임을 드러내는 背膂를 충족시키고 中上部에 있는 脾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크고, 반면에 下部에 있는 腎으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작다. 少陰人은 지킴에 광박하여 生命의 存在를 유지해주는 精이 발달되어 精의 기운이 生殖을 수행하는 膀胱을 충족시키고 精을 潛藏하는 腎으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크고, 脾로 기운을 돌리는 것이 작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太陽人은 神이 발달한 사람이고 太陰人은 血이 발달한 사람이며, 少陽人은 氣가 발달한 사람이고 少陰人은 精이 발달한 사람이다.

III. 比較考察

지금까지 「靈樞·通天」 편에 대한 '五態之人'의 陰陽多少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精, 神, 氣, 血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臟腑論」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마의 四象體質醫學이 「靈樞·通天」 편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黃帝內經」의 중심축인 精, 神, 氣, 血의 盛衰와 多少를 통해 四態之人의 차이 곧 四象人體質의 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반대로 「靈樞·通天」 편의 '四態之人'은 「東醫壽世保元」의 四象體質人의 차이를 통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精은 生命의 空間的 存在를 孕胎하고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고 神은 生命의 時間的 變化를 주관하는 理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나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來源한 先天의 인 것이며, 氣血에 의하여 滋養을 받음으로써 자기를 유지한다. 血은 生命의

存在를 形體的으로 實體化시켜주는 것이고, 氣는 生體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動力으로, 後天的으로 섭취한 天氣와 地氣(水穀之氣, 空氣 등)에 의하여 生成되며 精에 의하여 자리를 정하고 神에 의하여 조정받는다.

李濟馬는 비록 心性을 통해 體質의 形成을 논하고 있지만, 동시에 精, 神, 氣, 血의 盛衰, 多少가 體質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實在的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臟腑論」을 통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⁴⁶⁾ 동시에 이 네가지 서로 다른 체질의 사람이 사람으로서 같은 心性을 가질 수 있는 여지에 대하여 「四端論」에서,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⁴⁷⁾ 라고 하여, 하나의 太極에 根源하여 分出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精, 神, 氣, 血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의 氣에서 갈라져 나온 한 氣의 변태에 지나지 않은 것과 一脈相通한다고 할 것이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生命體는 이 精, 神, 氣, 血 네가지의 調和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 이렇게 다른 성질을 가진 네 氣가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本源의 한 氣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先天과 後天이란 來源과 役割이 다른 이상 精과 神, 氣와 血은 다른 次元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神이 발달한 太陽人과 精이 발달한 少陰人은 先天人으로 같은 次元의 同類라고 할 수 있으며, 氣가 발달한 少陽人과 血이 발달한 太陰人은 後天人으로 같은 次元의 同流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次元의 同類로서 太陽人과 少陰人은 모두 精과 神이 발달한 체질이지만 氣와 血은 덜 발달된

46) 李濟馬, 上揭書, pp. 12-14.

47) 李濟馬, 上揭書, p. 5.

체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同類로서 太陰人과 少陽人은 氣와 血은 발달했지만 精과 神은 덜 발달된 體質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太陽人은 少陽人과 같은 陽人이기 때문에 少陰人에 비하여 氣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少陰人은 太陰人과 같은 陰人이기 때문에 太陽人에 비하여 血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少陽人은 太陰人에 비하여 神이 더 발달되어 있고, 太陰人은 精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한꺼번에 묶어 논한다면, 陽人중에 先天人인 太陽人은 神, 精, 氣, 血의 순서로 盛衰多少의 특성을 띤 神人이라고 할 수 있으며, 後天人인 少陽人은 氣, 血, 神, 精의 순서로 盛衰多少의 특성을 띤 氣人이라고 할 수 있다. 陰人중에 先天人인 少陰人은 精, 神, 血, 氣의 순서로 盛衰多少의 특성을 띤 精人이라고 할 수 있으며, 後天人인 太陰人은 血, 氣, 精, 神의 순서로 盛衰多少의 특성을 띤 血人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後天之氣를 받아들이는 消化能力은 太陰人과 少陽人이 太陽人과 少陰人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다.

四象體質人	精神氣血의 盛衰多少			
太陽人	神	精	氣	血
少陽人	氣	血	神	精
太陰人	血	氣	精	神
少陰人	精	神	血	氣

【表-體質에 따른 精氣神血의 盛衰多少】

IV. 結論

지금까지 『黃帝內經靈樞·通天』 편을 토대로 '四態之人'의 陰陽多少에 대하여 살펴보고, 『黃帝內經』 과 역대문헌을 통해 精, 神, 氣, 血의 來源과 性質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東醫壽世保元』 에 나오는 四象體質의 精, 神, 氣, 血의 盛衰多少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黃帝內經靈樞·通天』 편에 나오는 陰陽은 太陽之人과 少陰之人은 精과 神의 多少로, 太陰之人과 少陽之人은 氣와 血의 多少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太陽之人은 神多精少한 體質이고 少陰之人은 精多神少한 체질이며, 太陰之人은 血多氣少한 체질이고 少陽之人은 氣多血少한 체질이다.

2. 太陽人和 少陰人은 先天에서 來源한 神과 精이 발달한 體質이고 太陰人和 少陽人은 後天에서 來源한 血과 氣가 발달한 體質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太陽人和 少陰人은 精과 神이 盛多하고, 太陰人和 少陽人은 氣와 血이 盛多하다. 따라서 陽人중에 太陽人은 神, 精, 氣, 血의 순서로 盛衰多少한 體質이니 神人이라고 할 수 있으며, 少陽人은 氣, 血, 神, 精의 순서로 盛衰多少한 氣人이라고 할 수 있다. 陰人중에 少陰人은 精, 神, 氣, 血의 순서로 盛衰多少한 精人이라고 할 수 있으며, 太陰人은 血, 氣, 精, 神의 순서로 盛衰多少한 血人이라고 할 수 있다.

V.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
3.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1987, 서울.
4. 李濟馬,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64, 서울.
5. 李濟馬 著·洪淳用, 李乙浩 譯述,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1974, 서울.
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影印, 1993, 서울.
7. 龔廷賢, 萬病回春, 醫聖堂 影印, 1993, 서울.
8. 張介賓, 景岳全書·上, 大星文化社 影印, 1988, 서울.
9. 馬蒔, 醫部全錄Ⅲ·黃帝靈樞經, 大星文化社 影印, 1983, 서울.
10. 張璐, 張氏醫通,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중국.
11. 吳謙 등, 醫宗金鑑·訂正傷寒論注, 人民衛生出版社, 1982, 중국.
12. 吳達, 醫學求是,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4, 중국.
13. 郭霽春, 中醫名言大辭典·上, 一中社 影印, 1992, 서울.
14. 朴性植·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의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대한한의학회 사상의학회, 1993, 서울.
15. 權健赫, 太少陰陽人에 대한 形氣論의 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 10, 1996, 서울.